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인천소식

이 원 구 · 인천일보기자

인천시립무용단 베트남 공연

인천 춤이 베트남 이국의 밤무대를 화려하게 물들였다.

인천시립무용단(무용감독 한명옥)은 '한국·베트남 수교 12주년 기념 한국 전통의 밤'을 14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하노이벳 – 소문화궁전에 풀어 놓았다. 이번 공연은 특히 지난해 무용단의 춤을 접한 현지인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무용단은 악귀를 막는 의미를 담은 '처용·학·연화대합설무'로 무대를 열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 춤 '부채춤'에 이어 인천시 무형문화재 3호인 '나나니춤'으로 바다를 부둥켜안고 살아온 인천 갯가 아낙네들의 삶과 애환을 선보였다. 후반부에서는 '소고춤', '진도북춤', '북의 대합주' 등 다이나믹한 리듬의 한국 전통춤을 선사, 800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서는 베트남 무용협회 소속 무용단원들도 참석, 불춤 등 베트남 전통무용으로 무대를 더했다.

아시아나항공과 GM대우자동차 협찬으로 실시된 이날 공연에서는 외신기자들도 참석,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인천음악문화원 봄맞이 오페라의 밤

〈봄길로의 초대〉 인천음악문화원이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봄맞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을 열고 관객들을 봄의 세계로 안내했다.

공연에선 소프라노 박경녀, 메조 소프라노 김순미, 테너 신영조·황건식, 베이스 조병욱이 나와 한국가곡과 외국가곡, 오페라 아리아를 선사했다.

김순미는 최인숙의 피아노 선율에 맞춰 '그리움'을 노래했고 조병욱은 '그대 있음에'와 슈트라우스의 '헌정'을 들려줬다.

오페라 "라보엠"의 '그대의 찬 손'과 '내 이름은 미미'는 황건식과 박경녀이 각각 불렀으며 '이다지 귀여운 소녀'는 듀엣으로 환상의 화음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신영조의 '나물캐는 처녀', '산노을'과 황건식의 '보리밭', '그대를 위하여'도 함께 감상할 수 있었다. 신영조의 '님이 오시는지' '간다 간다 하더니'에 이은 피날레는 출연자 전원의 '희망의 나라로'와 '동무생각' 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중국국가장애인예술단 인천공연

세계 최고의 명성과 기량을 자랑하는 중국국가장애인예술단(단장 여우량)이 인천무대를 찾았다.

지난 10일과 11일 오후 7시 인천종합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중국국가장애인예술단 인천공연. 20일간의 한국 투어 일정 중에 서울올림픽홀에 이은 두 번째 무대였다.

중국국가장애인예술단은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장애인협회 소속으로 1987년 창단,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주석의 장남으로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에게 쫓기다 다리를 다쳤다고 알려진 덩푸팡(鄧朴樸方)씨가 이끌며 중국의 의전공연단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동남아 유럽 등 30여 개국에서 역대 대통령과 수상들 앞에서 수차례의 공연을 통해 찬사를 받으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중국장애인예술대회에서 선발된 6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예술단은 청각장애인 13명, 지체부자유인 11명, 시각장애인 4명 등 1시간 30여 분간 천수관음을 비롯해 노래와 춤, 연주, 그리고 서커스 등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경기소식

류 주 선 · 경인일보기자

경기지역 미술계 정체성 찾기 활발

경기지역 미술계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지역은 서울이란 거대시장에 묻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지난해 이 같은 문제점을 다시 일깨우면서, '지역미술의 커뮤니티'를 조성하자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경기남부지역 미술대학 교수들이다.

경기대, 수원대, 협성대, 강남대, 용인대, 수원여대 등 6개 미술대학 교수 12명은 제자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고, 수원·용인·의왕 등에 있는 미술단체와 대학을 연결시키는 〈제1회 경기아트페어〉를 2003년 5월 2~7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열었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 작가들의 이주가 많아지고 있는 고양 일산신도시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작가들이 직접 거론하자며 〈신도시〉展을, 과천·의왕·안양·군포 4개 지역 젊은 작가들은 '지역미술의 정체성을 찾자'며 제비울미술관에서 〈우리동네 작가〉展을 각각 열었고, 경기북부지역 100명의 작가들도 낙후되는 북부지역 미술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100인〉展을 갖기도 했다.

이 흐름을 선도했던 경기남부지역 교수들이 올봄에는 직접 '지역미술의 정체성'을 찾고, 후학들에게 '자식인'으로써 모범을 보이자면서 〈기획전시회〉를 마련, 화제가 됐다.

지난 3월 16~22일 수원미술전시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 수원미술전시관 신춘기획전 〈수원의 봄〉展이 바로 그것. 강남대, 경기대, 경희대, 수원대, 수원여대, 용인대, 중앙대, 협성대 등 8개 대학 28명의 미술대학 교수들이 참여해 회화와 도예, 조소, 환경

조경디자인, 시각디자인, 공예 등 8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다.

이번 기획전을 주도한 수원대 이재복 교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경기지역 미술이 정체성을 찾고,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오는 6월 재단법인으로 재출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오는 6월 1일자로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출범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 '(재)경기도문화의전당 발기인대회'를 개최, 초대 대표이사 사장에 홍사종 현 관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

18명의 이사는 동양시스템즈(주) 구자홍 대표이사, 박물관협회 김종규 회장, 도의회 김대숙 의원, 경기문화재단 송태호 대표이사, 경기예총 정규호 회장, 단국대 유민영 석좌교수, 프레시안 이근성 상임고문, 김영사 박은주 사장, 국민대 배규한 교수, 경기도박물관 이종선 관장, 정진곤 한양대 교수, 표재순 연세대 특임교수 등 문화계·학계·교육계 인사로 구성됐다. 당연직 이사장은 손학규 경기도지사이다.

공무원으로는 도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문화정책과장은 공인회계사 1명과 함께 감사로 참여한다.

홍 초대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와 복지, 문화와 공교육을 결합시켜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사업소인 도문예회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독립법인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강원소식

남 궁 현 · 강원일보기자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 첫 선

문화분권시대에 부응, 강원지역문화발전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이 첫 선을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은 도내 문화예술 현황을 분석, 강원문화인프라 6대 중점전략을 제시하는 등 강원문화의 방향 및 추진과제를 담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은 오는 2006년까지 1단계로 추진되며, 2단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문화기반시설 – 강원도의 문화자수는 다른 지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박물관·미술관을 제외하면 수량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이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문화된 공연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극장 등 특성화된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문화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문화프로그램 뱅크 운영 등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문화프로그램 개발도 절실하다.

▶ 문화예술의 창조력 – 지역문화의 밑거름은 창작활동을 전담하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이 핵심 요소. 하지만 자생적인 지역문화단체의 재정적 자립기반이 취약하다.

전문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미흡하고 지역문화정책을 담당할 지역문화행정가와 문화기획인력 등이 미미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개설, 도립미술관 건립, 도문화예술아카데미 설립, 도청소년교향악단 창단, 아시아환경다큐멘터리 영화제 창설 등도 필요하다.

▶ 문화향수 기회 – 도의 경우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 간 문화의 이질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문화향수기회 부족과 도농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문화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하다.

지역사랑티켓제도를 도입, 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 등 순수공연예술작품을 관객이 저렴한 입장료를 내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지역문화산업 육성 – 현재 도내에 있는 문화산업 사업체는 5,435개, 종사자는 12,769명이다. 규모의 영세성이 문화산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콘텐츠의 고유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문화산업의 지역특화를 위해 춘천문화산업클러스터, 원주전통공예산업지원센터, 강릉전통문화상품제조지원센터 등 권역별로 문화산업거점을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강원문화정체성·전통문화 – 도내 문화재는 한반도 선사문화연구에 있어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종합적·중장기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미미하다.

강원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마무리하고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을 강화하며 강원향토사관 건립, 강원문화상징 개발, 강원사이버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등의 추진도 절실하다.

▶ 문화예술계 반응 – 배동욱 도예총회장은 "열린 문화행정의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지난해 강원도의 문화예산은 2조6,000억여 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3.8%에 불과한 것도 해결 과제"라고 했다.

성희직 민예총도지회장은 "지역문화정책의 혁신과 자생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 지역문화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도는 ▷강원도 향토사관 건립 ▷강원문화아카데미 설치 ▷청소년문화예술 활성화 등 10대 핵심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도립예술단·어린이강원합창단 서울국제빙상대회에 공식 초청

문화예술공연으로 2004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앞당긴다.

강원도립예술단과 어린이강원합창단이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태릉국제빙상장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주최 〈2004 세계종목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폐막식에 공식초청됐다.

14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피아드호텔에서 전세계 동계스포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한 이들은 지역 예술단체로는 유일하게 초청돼 주목받았다.

강원국악관현악단(지휘 신영균)은 이날 공연에서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에 오르는 기분을 철가야금과 신디로 표현한 '산행'과 대금과 양금이 서정적으로 어우러진 '삼포가는 길' 등 2곡을 연주했다.

이어 도립무용단(안무 지희영) 20여 명은 '화관무'를 선보였다. 궁중무용의 하나인 '화관무'는 몸의 자세가 바르고 춤사위가 우아하며 움직이는 선이 유연한 것이 특징.

지난 1999년 8월 창단한 강원도립예술단은 도내 각 지역행사에 초청받아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도내 유일의 어린이전문합창단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어린이강원합창단의 공연도 호평을 받았다.

어린이강원합창단(단장·유원)은 이날 미국민요 '스킵 투 마이 루(Skip To My Lou)', 프랑스 노래 '샹제리제', 박건호·길옥윤의 '아침의 나라에서' 등의 3곡을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1985년 4월 창단된 어린이강원합창단은 한국·러시아 연결 동춘호 출항식 특별공연을 비롯 99강원EXPO 선포식 특별공연, 일본 히로시마 NHK-TV 초청공연, 대만 CTS-TV 초청공연, 미국 LA 초청공연, 소련연방 우크라니아 청소년 예술단 초청 합동공연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펼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충청소식

이 현 숙 · 충청일보기자

신춘음악회

새 봄을 맞아 신춘음악회가 잇따라 열렸다. 합창과 교향악 연주를 비롯해 바이올린 연주회가 선을 보였다.

청주시립합창단 제5회 창작합창곡의 밤이 3월 11일 저녁 7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충북작곡가협회 회원들이 만든 창작곡을 모아 합창으로 들려줬다. 김정연씨의 지휘로 피아노는 최향희씨, 신혜경씨가 맡았다.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제122회 수시연주회를 3월 12일, 특별연주회를 3월 26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각각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장문학씨의 지휘로 신춘 가곡과 아리아, 피아노협주곡을 연주했다. 레파토리는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 을 비롯해 바하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콘첼토' 를 연주했다. 또 청주 출신의 첼로 연주자 채희철씨를 초빙해 협연무대를 꾸몄다.

이외에도 바이올린 연주자 양승돈씨가 '양승돈의 바이올린 이야기' 를 테마로 3월 18일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시립국악단이 국악인 김성녀씨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을 마련했다.

극단 청년극장 〈비언소〉 공연

극단 청년극장이 제91회 정기공연작으로 이상우 작, 이창구 연출의 〈비언소〉를 무대에 올렸다.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문화공간 너름새에서 공연된 〈비언소〉는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펼쳐진 사회풍자극. 쓰레기같은 일들이 화장실에서 벌어진다. 오늘의 사회 단면을 적나라하게 들춰낸 작품이다.

〈비언소〉는 오늘의 정치 사회 상황에서 소재를 따온 풍자극으로 요즘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연극이었다. 생동감있는 극 전개와 특유의 쏟아내는 대사 탓에 폭소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 작품은 각각의 독립된 장면들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 화장실을 이용한 극중극 수법으로 사회 가치가 뒤범벅이 되는 현실을 고발한다.

결국 〈비언소〉는 우리 사회의 무력감과 방향상실을 풍자한 작품이면서 한 동안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지역 연극계에 일단 관객을 유치하는데 신선한 활력을 준 연극이었다. 출연 홍진홍, 이계택, 김태섭, 정창석, 류지연, 김정수.

연초 도내 문화예술단체 수장 대거 교체

2004년 들어 도내 예술단체의 수장들이 새로 선출되었거나 재추대로 연임되는 등 단체장들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올 한해 지역 예술활동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새로 회장이 선출된 단체로는 충주예총의 김경인 지부장, 제천예총의 김연호 지부장, 충북사진작가협회의 신현하 지회장, 충북연극협회의 홍진웅 지회장, 청주연극협회의 문길곤 지부장 등이다.

연임회장으로는 충북민예총의 김승환 지회장, 청주문화원의 박영수 원장, 청주예총의 김동연 지부장, 충북국악협회의 박용환 회장 등이다.

올해 예술단체의 협회장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각 단체별로 의욕적인 사업을 마련, 지역예술계의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충주예총은 올해 우륵문화제를 내실있게 주관하고 제천예총은 올해 처음 역사인들을 발굴해 옥소종합문화예술제를 구상하고 있다. 충북연극협회와 청주연극협회는 시립극단 발족을 위한 당면문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충북민예총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 베트남과의 해외교류를 갖는다.

청주문화원은 신규사업으로 청주역사자료도서실 조성을 5개년에 걸쳐 계획한다. 청주예총은 오는 10월 가칭 직지예술제를 처음 마련하며 충북국악협회는 충남북학생국악경연대회를 중점 사업으로 펼친다.

청주시립무용단 〈전국시립무용단 교류전〉

청주시립무용단이 제20회 정기공연으로 〈전주시립무용단 교류전〉을 3월 20일 저녁 7시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가졌다. 이번 교류행사에는 전국 광역시 3개 무용단을 초청해 펼쳐졌다. 참여 무용단은 청주시립무용단을 비롯해 인천, 대전, 부산 시립무용단이 청주무대를 찾았다. 이번 춤 교류전은 청주시립무용단이 지역 무용인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처음 기획한 행사로 각 시립무용단이 무대에 올리는 서로 다른 작품의 색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공연작은 청주시립무용단 '선유락' 과 '봄돌', 인천시립무용단이 '본향', 대전시립무용단이 '진도북춤', 부산시립무용단이 '설장고' 를 각각 선보였다.

이들 작품은 전통춤의 정신을 담으면서 한국춤의 본질인 흥과 멋, 한국적인 정서가 승화된 전통창작춤을 선보였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소재와 선택, 구성면에서 전통을 춤으로 표현한 내용들이다.

경남소식

강 동 욱 · 경남일보기자

통영 국제음악제 22일 개막

통영국제음악제 2004시즌이 22일부터 통영시 일원에서 막이 올랐다.

'공간' 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올해 통영국제음악제는 시즌 개막 축제가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통영시 일원에서 열리는 것을 비롯해 시즌 콘서트가 4월 7일과 6월 20일, 8월 30일, 시즌 폐막 공연이 10월 16일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등 연중 내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윤이상의 〈요정의 사랑〉, 영화 〈와호장룡〉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지휘자 겸 작곡가 탄둔의 〈워터패션〉, 카겔의 〈바이에테〉 등 음악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매력적인 곡들이 준비되어 있다.

22일 오후 7시 30분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시즌 개막 연주회는 윤이상의 작품 〈영혼의 사랑〉을 김홍재가 이끄는 코리아 심포니와 국립오페라단이 콘서트 오페라로 무대에 올리고 안트리오, 탄둔, 발레리 폴리안스키의 러시아 국립 카펠라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그 명성에 빛나는 연주를 선사하였다.

시즌 개막축제에는 또 첼리스트 나탈리 클레인, 백나영, 매트 하이모비츠가 바흐와 테버너, 브리튼과 해리슨 골리조프, 리드 토머스의 첼로 작품들을 선보이고 한국의 작곡가들인 윤이상, 홍신주, 김규동, 박정규, 이윤석씨의 작품을 뮤즈 앙상블로 무대에 올렸다.

이와 함께 토시야 스즈키의 리코더연주회와 실레지안 현악 4중단, 피아니스트 박휘암, 아코디언 테오도로 안젤로티, 창원 시향과 창원시립합창단 등이 다양한 곡들을 선보였다.

다양한 시즌 공연들이 화려한 선율을 자랑하는 4월과 6월, 8월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등에서 장윤성씨의 지휘 하에 창원시립교향악단과 창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구레의 노래' 를 무대에 올리고 첼리스트 미샤마이스키와 피아니스트 백혜선씨가 듀오 콘서트를 선보이며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정명훈의 '정트리오' 콘서트가 이어지게 된다.

한편, 시즌 폐막공연인 10월 16일에는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세계적인 거장 로린 마젤과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화려하게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경남연극제 최우수상 통영 벅수골의 〈선주〉

제22회 경남연극제 최우수상은 통영 벅수골의 〈선주〉가 차지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간 거제시 장승포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11개 대표극단이 1년간 갈고 닦은 솜씨를 겨루는 경연에서 창원 미소의 〈나락모티 사람들〉과 진해 고도의 〈유랑애사〉가 우수상을, 거제 예도의 〈똥꿈〉, 극단 마산의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또 개인 수상자는 ▲희곡상 – 김소정(진해) ▲연출상 – 장창석(통영) ▲연기대상 – 최태황(거제) · 천영형(창원) ▲무대예술상 – 극단 현장(진주) ▲우수연기상 – 이규성(통영) · 김종갑(마산)씨 이다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선주는 1960년대 통영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체 이야기는 박선주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의 개성있는 캐릭터가 나와 극의 재미를 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제22회 경남연극제는 지난 10일 오후 5시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의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12일간의 열전을 벌였다.

대구 · 경북소식

김 해 용 · 매일신문기자

대구타악예술협회 창단 20주년 특별연주회

대구타악예술협회(회장 권세홍)가 창단 20주년 기념으로 마림바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를 3월 13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예회관에서 가졌다.

마림바 10대 등 타악기 50여 종이 무대에 오른 이날 연주회에서 마림바는 총 5부로 편성돼 오케스트라의 현악 합주 음역을 커버했다. 마림바오케스트라는 권세홍의 지휘 아래 이날 파르니의 '아프로 아메리카', 오펜바하의 '자크린느 눈물',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등을 연주했다.

1984년 창립한 대구타악예술협회는 지금까지 150여 회의 연주회와 세미나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회 산하에 마림바오케스트라와 뉴퍼쿠션 앙상블, 바나차스 등 연주단을 두고 있다.

대구 대표 축제 개발 시민 대토론회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 개발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2월 1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2003년 12월 7일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문화예술인, 대구시 관계자,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석해 달구벌 축제를 대표할 만한 대구의 대표적 축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팀장은 "성공한 축제들은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나 전통들을 축제적 요소로 재창조했다"며 "축제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모티브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정걸 이천도자기 비엔날레 운영부장은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와 세계도자기 비엔날레 행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표 및 전략 수립, 내 · 외부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국제테마축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7월중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의 최종안을 선정하기로 했다. 늦어도 올 8월중에는 테마를 정하고 기획단과 세부추진계획(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봄의 축전〉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기획공연 〈봄의 축전〉이 2, 3월 성황리에 개최됐다.

먼저 2월 20, 21일에는 '새 봄과 함께 하는 오페라 여행'이 열렸다. 오페라의 역사 및 감상 길라잡이, 유명 오페라 DVD 감상, 유명 성악가들의 공연 순서로 이어졌다.

2월 26, 27일(오후 7시 30분)에는 국립오페라단 초청 '지젤' 공연이 있었으며, 3월 6일에는 성악의 향연 '봄을 여는 소리'가 열렸다. 대구지역의 중견 성악가 20명이 출연해 오케스트라 반주로 오페라 앙상블과 봄을 주제로 한 한국가곡들을 불렀다.

마지막 행사로는 3월 9일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라이어티 콘서트'가 대미를 장식했다. 대구지역 각 대학의 피아니스트 13명이 피아노 독주곡과 듀오곡, 연탄 등 다양한 형식의 피아노 연주를 들려줬다.

부산소식

박 희 봉 · 국제신문기자

'노래의 본고장' 전통 되살리기

'노래의 고장' 부산에서 옛 노래 복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운동을 이끌고 있는 단체는 부산 정가회. 3년 전 시조명창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가회는 선비들의 멋과 풍류를 되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는 교사, 학생 등 7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음악은 민속악과 정악으로 대별된다. 민속악에 판소리 민요가 있다면 정악에는 정가가 있다. 정악에는 정가와 시조창 등이 포함된다.

부산이 '노래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정가의 모태인 고려시대 정서의 「정과정곡」이 부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현대적인 가요의 출발지도 부산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가회는 우선 부산시와 공동으로 정과정 기념공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어린이 정가합창단도 창단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했으며 앞으로 어린이 정가합창단을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단체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전국 순회공연과 해외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원 북 원 부산' 운동

부산이 책과 사랑에 빠진다.

부산시교육청은 기존의 일회성 책읽기 운동에서 탈피해 장기적이고 새로운 독서운동인 '원 북 원 부산' 사업을 내달부터 착수한다.

한 해 동안 한 권의 도서를 선정해 시민들에게 책을 무료 배포하며 작가와의 토론회, 감상문 발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병행하는 이 사업은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38개주 90여 도시가 참여해 큰 성과를 거둔 문화운동. 지금은 영국, 캐나다 등으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충남 서산과 전남 순천에서 시행한 바 있으나 선정 도서를 시민들이 구입해 돌려 읽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책 선정에서 배포까지 면밀히 계획을 세웠다.

우선 전국 교수단 30명으로 구성된 독서지도 모임과 교육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10권의 도서를 선정한 뒤 10만 명의 네티즌 투표를 통해 『괭이부리말 아이들』(김중미 지음 · 창비 간)을 올해의 도서로 결정했다.

이어 이 책 초판 20만부를 정본과 핸드북으로 나눠 찍어 각종 기관, 시설 등에 나눠주고 30만부를 추가로 배포하는 등 연중 무료 배부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 중 1억5천만 원을 부산시 독서진흥기금에서 이미 확보했으며 각종 시민단체로부터 후원 약속을 받아 놓아 사업 성공의 토대를 마련했다.

부산의 '창비' 만든다

시 전문 계간지인 『신생』이 출판사업도 병행키로 해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는 부산출판가에 하나의 사건이 되고 있다. 지난 99년 창간돼 통권 17호까지 발간된 『신생』 편집진이 기존의 계간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획출판을 통해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 출판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이들은 창비나 실천문학사가 이 같은 체제로 상당한 문화적 성과를 거둔 점을 감안해 부산에도 이들과 비슷한 성격의 잡지·출판사 겸업 형태의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신생』 편집진은 선정위원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작품성을 따져 수준 높은 시선집을 잇따라 발간키로 하고 이미 1, 2집을 출간했으며 곧 3집도 선보일 예정이다. 1집은 편집주간인 이성희씨의 『허공 속의 등꽃』이며 2집은 박종해 시인의 『개불』이다.

문학평론가 구모룡(한국해양대) 교수와 이규열·조성래 시인이 편집위원으로, 이해웅(부산교대), 채희완(부산대) 교수가 고문을 맡고 있다.

광주·전남소식

김 미 은 · 광주일보기자

박용철 탄생 100주기

광주 출신으로 '떠나가는 배' 등 주옥같은 시를 남긴 용아 박용철(1904-1938) 시인을 기리기 위한 용아 박용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추진위는 시인인 문병란 조선대 명예교수와 손광은 전남대 명예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박형철(광주문인협회 회장)씨 등 광주지역 문화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는 용아 생가축제 위원회, 학술심포지엄 위원회, 문예작품 공모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학술심포지엄 개최, 기성과 신인을 망라한 '용아 문학상' 공모, 생가를 중심으로 한 문화 관광 투어 마련, 용아 작품을 주제로 한 미술, 음악, 서예 등 향토예술 작품 전시회와 시낭송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주관해 온 문화예술상의 문학 부문 명칭을 '용아 문학상'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립미술관 상설전

광주 시립미술관(관장 이태길)의 전시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2004 상반기 상설전〉이 오는 6월 30일까지 본관 2층 상설전시장에서 열린다.

신소장품전에서는 지난 2002~2003년에 수집한 한국화가 아산 조방원 화백의 '산가추정', 희재 문장호 화백의 '초추농운', 서양화가 오승우씨의 '동양의 빛 - 근정전', 강용운씨의 '기억 3' 등 30여 점이 공개된다.

또 하정웅 3차 컬렉션전에서는 재일교포 사업가인 하정웅(광주 시립미술관 명예관장)씨가 지난 2003년 시립미술관에 3차 기증한 작품 중 이우환, 피카소, 뭉크, 샤갈 등 국내외 유명작가의 수작들이 선보인다.

그 밖에 시립미술관이 올해 의욕적으로 마련한 〈지역작가 특별코너 - 강연균전〉에서는 정물과 풍경, 인물 등의 다양한 소재를 수채화로 일관되게 담아오고 있는 중진화가 강연균씨의 대표작 등 25점이 선보이며 현재 국제무대에서 동서미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재일화가이자 이론가인 이우환씨의 작품 17점을 감상할 수 있는 이우환전도 마련돼 있다.

또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 오지호 화백의 작품 8점과 외부로부터 대여한 작품 4점 등 12점이 전시되는 오지호전, 한국 화단의 거목 의재 허백련 화백의 산수·화조·사군자·서예 등 16점이 전시되는 허백련전도 미술애호가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금호고속 메세나 활동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대표이사 이원태)가 금호 아시아나 그룹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한재환)과 공식후원회사 결연 협약을 맺었다.

금호고속은 3월 8일 광주문예회관에서 협약식을 갖고 지역문화 예술 창달과 전통 국악 예술 발전을 위해 광주시립국극단에게 매년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회관측은 시립예술단 공연 시, 연간 후원금에 상당하는 공연 입장권을 금호측에 전달하고 금호 측이 실시하는 고객서비스 행사에 시립예술단을 초청할 경우 적극 동참하는 등 후원사에 대한 예의를 갖출 계획이다.

전북소식

최 기 우 · 전북일보 기자

판소리 영어자막·현대어 개작 시연회

한자어로 이뤄진 판소리 옛 사설을 쉬운 우리말로 들을 수 있는 판소리 감상회가 열렸다.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판소리연구단이 마련한 〈판소리 영문자막 시연 및 현대어 개작 판소리 시연회〉(5일 오후 7시 전주전통문화센터 경업당).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판소리 사설의 채록 정리 주석 번역 및 실용화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두 번째 보고회다. 지난해 5월 영문자막을 선보인 첫 번째 보고회처럼 각 대학에서 강의하는 외국인 강사나 미국·베트남·키르키즈스탄 등 외국인 교환학생, 판소리 연구자, 판소리 매니아들로 객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영문자막 스크린을 배경으로 젊은 소리꾼 장문희가 박봉술 바디 적벽가 중 '군사 설움 대목'을 불렀고, 김연 명창은 김연수 바디 흥보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을 현대어 사설 판소리로 바꿔 불렀다. 낯선 현대어 사설 초연에 떨리기도 했을 테지만 김연은 무르익은 발림으로 예전보다 더 흥이 나 소리를 풀며 좌중을 휘어잡았다.

창작극회 〈상봉〉 전주·남원·익산 순회공연

극단 창작극회(대표 홍석찬)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상봉〉(연출 류경호·대본 최기우)으로 전북지역 순회공연에 나섰다. 12일 전주 덕진예술회관과 13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14일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매 공연 오후 7시 30분).

비전향장기수의 삶을 통해 민족의 아픔을 되새긴 이 작품은 지난해 제21회 전국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대통령상)과 연출상·희곡상·연기상(김순자) 등 4개 부문을 석권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신입단원으로 지난 1월 〈나루터〉에 출연했던 박규현·정민영·송명옥씨가 가세, 새로워진 무대를 연출했다.

전통문화예술 정리 작업 나선다

전라북도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전북 지역 곳곳에 숨겨진 전통문화의 흔적을 추적하는 작업에 나섰다. 전북의 전통문화예술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 인프라 구축과 중장기적인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전통문화예술의 정리'다. 전통문화예술의 정체성을 단단히 다져나가기 위한 다부진 걸음, 첫 결실이 '전라북도 마을지킴이·정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약 8개월 동안 이뤄졌다.

마을지킴이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이 신앙의 대상으로만 보는데 집중됐었다면, 이번 조사는 신앙의 의미를 넘어 마을 사람들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마을지킴이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문학적 접근이다.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마을지킴이가 한국 전통문화와 민속문화 전승의 원천적 토대가 됐음을 밝혀내고, 마을지킴이와 당산제의 관계에도 주목해 두 대상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 존재의의가 제한적인 것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당산나무·입석·돌탑·짐대(솟대)·장승·당집·남근석 등으로 마을지킴이의 유형과 역할을 나누고, 관련 의례의 유형도 유교식 제사 형·무당굿 형·풍물굿 형으로 분류했다. 모든 조사대상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현장에서의 마을지킴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비전승되는 전통음악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계보는 물론 생존해 있는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보는 현장조사를 기초로, 전북 정악문화의 전통과 현황을 살폈다. 여러 갈래로 내려오는 정간보와 오선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도 이번 조사의 성과다.

정악은 우석대 문정일 교수와 전주예고 황미연 교사가, 마을지킴이는 전주역사박물관 김성식 학예실장과 진안고등학교 이상훈 교사가 연구원으로 조사 작업을 주도했다.

전라북도는 올해 그동안 산발적·지역적으로 연구돼 왔던 민요·농악·만가를 정리한다.

제주소식

박 미 라 · 제민일보기자

평화·인권 주제, 4·3문화예술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열려

4·3항쟁 56주년을 맞는 올해 4·3문화예술제는 어떻게 치러질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지회장 김수열)가 3월 27일~4월 17일 '4·3, 그 희망의 시작'을 주제로 제11회 4·3문화예술제를 도내 일원서 개최한다.

올해로 10돌을 맞이하는 제주민예총은 4·3문화예술제의 기본 정신을 '평화·인권'으로 재정립, 지난 10년간의 역량 결집에 주력한다. 지금까지 4·3운동이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난해 10월 30일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후 4·3행사 전반은 향후 4·3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전승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제주민예총은 3월 27일~4월 17일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실서 4·3 후유장애인 생애사 아카이브전 〈공포의 기억을 딛고 평화로〉를 갖는다. 4·3의 흔적을 몸에 새긴 채 굴곡 진 삶을 살아야 했던 4·3 후유장애인들을 통해 제주의 과거를 되짚고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현장조사를 통한 후유장애인들의 생애사 영상, 사진, 유물, 자료, 기록 등을 총망라한 설치전이다.

4월 3일 당일, 역사맞이 4·3거리굿이 오후 4시 제주 시청 어울림 마당서 4·3항쟁 56주년 기념 도민대회로 시작된다. 이후 제주시가지를 잇는 꽃놀림과 거리도창제, 오후 6시 문예한마당이 마련되어 유족과 희생자를 위무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또 학살의 현장을 직접 찾는 '찾아가는 해원상생굿'이 2002년 다랑쉬 위령제, 2003년 북촌리 대학살 해원상생굿에 이어 화북동 내 곤을동에서 열린다. 해촌인 곤을동은 4·3 당시인 1949년 1월 4, 5일 토벌대의 집단학살로 마을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으며 현재 흔적만이 남아있다. 설치미술전을 비롯해 당시 생존자의 증언, 중요무형문화재 71호 칠머리당굿 기능보유자 김윤수 심방의 위령굿, 이애주씨의 살풀이, 풍물굿패 신나락의 땅풀이, 참배분향 등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4월 3~8일 탐라미술인협회 25명의 회원 주관 '4·3이 나에게 무엇인가' 제11회 4·3미술제를 비롯해 4월 11, 12일 놀이패 한라산의 4월굿 '섬, 사람들', 4월 4일 제주도 동남쪽 일대 4·3유적을 돌아볼 4·3문학기행 등이 마련된다.

또한 제주작가회의는 도내외 평론가의 글 12편이 수록된 4·3문학선집 『4·3평론선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폐교 활용 눈길

제주 농촌 지역 폐교가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사랑방이자 관광명소로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역의 현재 폐교 수는 30개. 도시·농촌화가 뚜렷치 않은 탓에 폐교 시기나 활용 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늦은 편이다. 제주의 경우 70% 이상이 1995년 이후 폐교, 2000년을 전후로 폐교 활용이 급격히 논의돼 왔다.

최근 야생의 제주를 찍으며 이름을 떨쳐 온 사진작가 서재철씨가 2001년 폐교된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를 포토갤러리 자연사랑으로 새 단장, 문을 열었고 1998년 폐교된 옛 신창중학교는 전시·공연·체험시설 등 복합문화공간 예울문화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토갤러리 자연사랑의 경우, 60평 규모의 따라비 전시장과 90여 평의 바람자리 전시장을 통해 제주의 풍광을 그대로 드러냄은 물론 그동안 가시교를 거쳐 간 졸업생들의 자취를 전시하는 등 주민,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문화명소로 잘 알려진 김영갑 갤러리 또한 폐교된 삼달분교를 개조한 사례다.

이 외에도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의 신양분교는 미술인의 작업실이자 전시공간인 조형연구소로, 성산읍 난산리 난산분교는 대안학교로, 대정읍 무릉동분교는 문화체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섬 속의 섬 우도의 연평교는 해양박물관으로 사용되는 등 제주의 수려한 풍광과 어울려 관광문화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도립예술단 무용단·오페라 기획단 개편

제주도립예술단이 현행 민속무용단·민속합주단·민속합창단 등 3개 조직에서 무용단·오페라 기획단 등 2개 조직으로 개편됐다. 최근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는 이들 내용을 담은 제주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부 내용의 수정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도립예술단설치 개정 조례안은 제주 문화예술인들의 반발로 한차례 보류됐으나,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다시 상정, '오페라단 총무' 위촉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도립예술단 개편 논의는 향토 민속 예술 중심에서 지역 문화 예술로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조직 규모는 축소, 공연 활동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행 3개단·150명(상임 120·비상임 30)이던 것이 2개단·100명(상임 75·비상임 25)으로 조정되며, 예술감독과 사무장 외에 공연지원 인력 2명이 증원되는 등 행정·기획 부분이 강화된다. 그러나 당초 오페라 기획단 신설과 관련, 제주 문화예술인들은 제주도문화진흥원이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오페라에만 초점을 맞춘 채 조례개정안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역 문화예술의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할 때 뮤지컬, 악극단, 연극단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할 수 있는 종합기획단, 혹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단, 전통 국악단 분야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